

2001 에너지전시회

“ESCO를 알면 에너지절약이 눈에 보인다!”

업체의 에너지절약시설로 선(先)설비 투자한 후 이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선진 영업기법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(ESCO)은 에너지사용자는 투자비 부담 없이 에너지절

약 시설투자를 하고, ESCO는 에너지 절감비용에서 이윤을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. 올해 ESCO-Mart에는 16개의 ESCO업체가 참가하여 일반 관람객들을 상대로 보유 기술 소개 및 ESCO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했다.



◇제5회 ESCO-Mart행사에는 김상열 산자부 자원정책실장(오른쪽 위)과 정장섭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(오른쪽 아래), 최석곤 ESCO 협회장 등 ESCO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.
◇산자부 장관 표창 수상자 : ①김영길 전무(세코), ②박종훈 부사장(SK), ③주용남 계장(경기도교육청), ④심규호 대표(화인테크), ⑤강호진 대표(아주테크), ⑥양정구 대리(에너지관리공단)

제5회 ESCO-Mart FOCUS

국내 유일의 에너지 종합 전시회인 「2001 에너지전 사회」가 지난 8월31일부터 4일간 서울 삼성동 COEX에서 개최됐다. 이 전시회에는 총 118개 업체가 참여하여 402개 제품을 선보였으며 그 중 ESCO관에는 ESCO 협회, 삼성에버랜드, SK 등 16개 업체가 참여하여 ESCO에 대한 소개 및 활발한 상담을 벌였다.

특히 ESCO관에서는 참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들의 직원들이 나와 에너지비용 절감기술, 고효율 제품 적용사례, 설계반영 등을 무료로 컨설팅하여 관람객과 ESCO간의 실질적인 비즈니스의 장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.

올 에너지전시회에서는 ESCO-Mart도 함께 개최되었다. 김상렬 산자부 자원정책실장, 정장섭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, 최석곤 ESCO협회장 등 ESCO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이 날 ESCO-Mart에서는 ESCO 유공자 표창 및 ESCO 보유기술 발표회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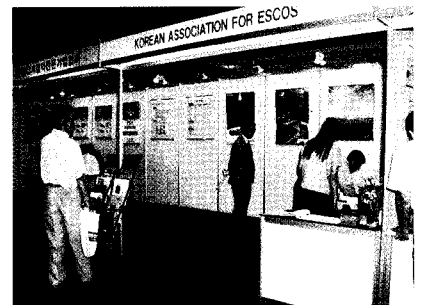
이어서 열린 ESCO사업 및 보유기술 발표회에서는 ESCO 사업 소개 및 계약관련규정(공단), 전력분석 및 제어시스템(세코), 절전형형광램프, 전자식 안정기특성(금호전기), Ice-Bon 빙축열 냉방시스템(EnE시스템), 보일러 저온 폐열회수 시스템(삼성에버랜드), IAQ Damper Unit 특성, 공조설비진단(한미설비) 등이 발표됐다.

대부분 현장 에너지담당자들인 참석자들은 “ESCO사업이 조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놀랐다”며 “에너지절약 마트 같은 행사가 좀더 자주 개최돼 다양한 기술 소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”고 입을 모았다.



◇정장섭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경인열기(ENG)의 이봉권 과장이 표창장을 수여받고 있는 모습(왼쪽 사진)
 ◇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표창 수상자 : 정수찬 과장(삼성에버랜드), 정경래 대리(금호전기), 이봉권 과장(경인열기ENG), 한용환 이사(와이티씨엔텍), 이재호 부장(한미설비), 소재옥 본부장(비티아이)

2001 에너지전시회



◇「2001에너지전시회」기간 동안 ESCO협회는 회원사들과 함께 부스를 마련하고 관람객들을 상대로 ESCO에 대한 홍보와 상담활동을 펼쳤다.

제5회 ESCO-Mart FOCUS

“향후 ESCO활용 에너지절약 사업 계획 있다.66%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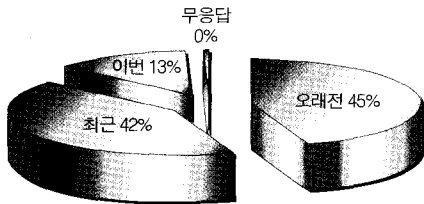
공단에서 실시한 ESCO-Mart 설문조사 결과, 많은 사람들이 ESCO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거나(응답자의 44.4%) 최근에 알게됐다(41.9%)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86.3%에 달해 ESCO사업에 대한 관심도와 최근 ESCO들의 활발한 활동상을 반영했다. 또한 행사참석의 동기를 묻는 질문에서는 60.7%가 향후 ESCO의 활용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답해 ESCO사업의 가능성을 뒷받침했다.

ESCO사업의 대상품목중 응답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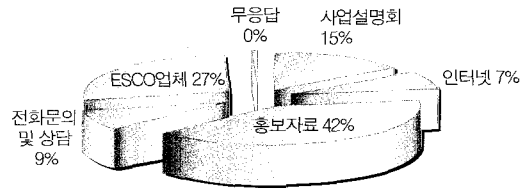
있는 품목은 조명기기(17.9%), 절약설비로의 교체(11.4%), 인버터(11.1%), 공조설비(10.6%), 전력피크치제어(10.5%) 등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.

공단의 한 관계자는 “경기 침체의 여파로 기업들의 설비 투자 의욕이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ESCO사업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”며 “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자금지원 등과 같은 유인책을 통하여 연말까지는 에너지설비투자를 지난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”이라고 말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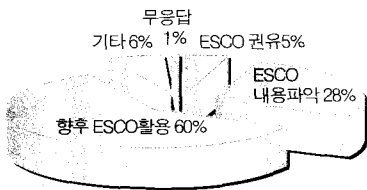
■ ESCO-Mart 설문조사 결과(총 234명 응답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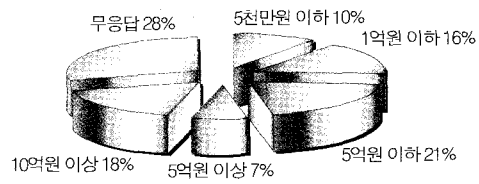
<ESCO 인지 시기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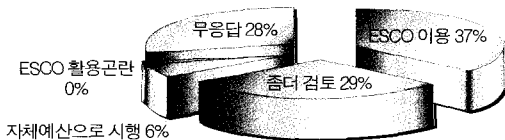
<ESCO 제도 인지 계기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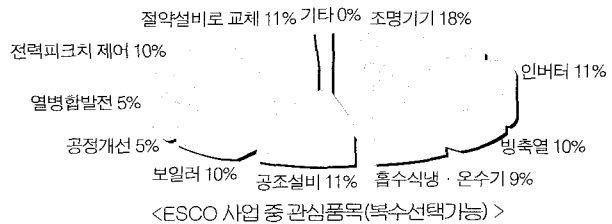
<에너지절약마트의 참석 동기>



<향후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예상규모>



<향후 에너지절약 사업 시행시 ESCO활용 여부>



<ESCO 사업 중 관심품목(복수선택가능)>